

일제 강점기 시사(詩社)와 문학적 대응 방식

— 나주의 반양시사와 광주의 해양음사를 중심으로 —

서성우*

차 례

1. 들어가며
2. 일제의 검열과 시사 활동
3. 시사와 문학적 대응 방식
 - 3.1. 나주의 반양시사
 - 3.2. 광주의 해양음사
4. 나오며

| 국문초록 |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결성된 나주의 반양시사(潘陽詩社)의 『반양시사』와 광주의 해양음사(海陽吟社)의 『운림당시문집(雲林堂詩文集)』를 다루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서의 시사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식민지적 근대 공간 안에서 문인들의 문학적 대응 방식을 살폈다.

일제의 비밀경찰은 정치단체 및 언론기관 뿐 만 아니라, 시사도 검열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사는 지역의 유림, 지역의 유지, 뜻있는 지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친일화를 위한 더 없이 좋은 모임이면서도 감시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시사는 자신의 울분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고,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또한 문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놓았다.

이에 시사에 참여한 작가들마다 문학적 대응 방식은 달랐다. 첫째, 일제 강점기의 극악 무도한 횡포를 비판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민족의 비통한 삶을 간접적으로나 언급하며 끊임없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갈망하였다. 둘째, 현실과 타협하며 태평성대를 노래한 부류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득권을 갖거나 유지한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어지러운 현실을 도외시한 부류이다. 이들은 경물(景物)에 집착한 시를 남겼다.

핵심어 : 일제 강점기, 반양시사, 해양음사, 저항, 타협, 도피

* 전남대학교

1. 들어가며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결성된 나주의 반양시사(潘陽詩社)의 『반양시사』와 광주의 해양음사(海陽吟社)의 『운림당시문집(雲林堂詩文集)』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시사 활동과 창작한 작품을 고찰하고, 식민지적 근대 공간 안에서 당시 문인들의 문화적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시사는 한시 창작을 전제로 한 문인들의 정기적인 모임이다. 이러한 시사는 창작 활동을 통한 집단의 유대의식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조선 후기에 결성되어 활동하였던 시사로는 송석원시사(옥계시사), 직하시사, 비연시사, 칠송정시사와 육교시사 등이 있다. 조선 후기의 시사들은 유대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사의 규약을 정하고, 정기적인 시회를 열었다. 때에 따라서 백일장을 열기도 하였는데, 유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측면에서 본다면 일제 강점기의 시사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시는 전대의 오랜 기간 한자문화권에서 서정 양식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랐으며, 더 이상 한시는 근대 문학 양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시사를 거론하는 것은 근대 계몽기를 이어 전대의 한문학 활동에 대한 여백으로 일정 부분 이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글에서 다루는 나주의 반양시사와 광주의 해양음사를 먼저 거론한 이유는 시사 중에 시문집을 남긴 시사이면서, 일제강점기 시사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근대 시사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장선희¹⁾, 김정환²⁾, 박종훈³⁾ 등에 의해 학계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결성되어 활동한 여러 지역의 시사활동

1) 장선희, 「近代 이후 長成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詩社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장선희, 「木浦詩社 研究」, 『언어문학』 제4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장선희, 「每月吟社 研究-近代後期 湖南地域 詩社活動의 일 모습」, 『한국언어문학』, 제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2) 김정환, 「20세기 求禮의 詩社 연구」, 『어문논총』 제16호, 한국언어문학연구소, 2005.

3) 박종훈, 「반양시사의 활동 양상과 작품 세계」, 『온지논총』 제41호, 온지학회, 2014.

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호남지역의 일부 지역인 목포, 장성, 나주, 구례의 시사만 다루어져 있다. 시사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에서 결성된 시사와 시사원 및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제 강점기 일제의 검열속에서 활동했던 시사와 그 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작자의 대응 방식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당시 시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한시 창작을 고수했던 문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일제의 검열과 시사 활동

2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헌병경찰들의 검열이 이루어졌던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 시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10년 8월에 우리나라는 국권 및 국토를 완전히 일제에게 강탈당하고 국호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그 동안 일제는 극악무도한 무력을 동원하여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해왔다. 이러한 일제의 횡포에 뜻있는 지사(志士)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하였거나 국내·외에서 광복운동을 펼쳤다.

그로부터 일본은 한국에 총독정치를 실시하고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육군대장을 총독으로 임명하였는데, 전형적인 일본 군인으로, 그의 정치는 학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총독으로 취임하자 헌병경찰이라는 비밀경찰을 창설하여 우리의 애국자를 탄압하고 정치단체는 완전히 강제 해산을 시켰으며 언론기관은 모조리 폐간 조치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야만적 탄압과 약탈은 독립사상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계기로 3·1독립선언과 함께 거국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 배설(裴說, Ernest T. Bethell)에 의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의 경우는 예외이기도 하다. 강한 자를 꺼리지 않

고, 공론은 세위 세계상 인도(人道)를 부식(扶植)하며, 또한 문명(文明)을 창달하고 백성의 지혜를 계발하여 대한독립정신을 배양코자 한다는 취지로 창간한 만큼,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발행되었던 민족진영의 어느 신문보다 훨씬 자유로운 처지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논조를 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만함(萬咸, Alfred W. Marnham)으로 바뀌면서부터는 배일(排日)논조도 크게 둔화되었다.⁴⁾

일제의 비밀경찰의 임무 중에는 ‘검열기능’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정치단체 및 언론기관만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횡포에 따른 저항도 커져 감에 따라 그들의 검열도 한층 강화되어 시사와 같은 소수 모임과 개인 문집도 검열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시사는 한시 창작을 위한 문인들의 모임으로, 이들 사이의 결집 의식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명승지 및 정자 등을 활동 근거지로 삼고 정기적인 시작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시사원은 대부분 지역의 유림, 지역의 유지 등이 대부분인 만큼 그들에게는 친일화를 위한 더 없이 좋은 모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시해야 할 검열 대상이었다.

또한 해양음사에 참여한 김문옥, 송운회, 송홍, 정만조 등은 애국계몽기를 거쳐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민족적 성향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타협하여 친일적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일제의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 작자들은 작품을 통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함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 흐려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일제의 개인 작품 검열은 배일(排日)감정을 담은 매천 황현의 『매천집』 내의 모든 작품에 ‘삭제(削除)’라는 문구가 찍혀 있는 『매천집』의 검열본⁵⁾

4) 권유성, 「〈대한매일신보〉소재 시가의 탈식민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10호, 한국시학회, 2004, 83~87쪽.

5) 매천 황현의 문집인 『매천집』(일제시대 총독부 검열본) 5권은 원래 1911년 창강 김택영이 중국 상해에서 발행한 책이다. 국내에 들어온 이 시집을 일본 경찰이 압수해갔다. 그 후 『매천후집』 2권의 시를 포함하여 구례 친은사에서 매천 황현의 친동생 황원(黃瑗)과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주의 만귀정 시사의 경우에는 따로 작품을 묶어 간행한 시집이 없어 이 글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만귀정 시사의 주 무대였던 만귀정에는 일본인이 참여하여 남긴 작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유로운 감정을 작품에 투영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희목은 일제 강점기의 한시작품을 주목한 바 있는데, 그는 “애국 계몽기로 지칭되는 1905년에서 1910년까지의 한시는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나, 1910년 이후 즉 일제 강점기 시대이후의 한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애국 계몽기와 견주어서도 결코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작다고 할 수 없는 한시가 창작되었던 실상을 감안한다면 그대로 방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9년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식민지 시기 한시 자료집』⁶⁾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이는 당시에 창작된 한시 작품은 물론, 한문학사의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의 한문학 활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각 지역의 시사원이 창작한 한시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양적으로 보아도 더욱 방대한 양이 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사들은 현실 대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든 점이 주목된다. 특히 애국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유림들 및 지식인들의 지향의식의 분화⁷⁾는 이 시기의 시사 활동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건방(李建芳)이 편정하여 1933년 6월에 제출간하려고 하였다. 이 총독부 검열본은 매천 황현의 우곡시 등 85군데나 비참하게 ‘삭제’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결국 간행되지 못했다.

- 6) 이희목, 김찬기, 김유경, 한영규, 김진균에 의해 간행된 책으로, 당시의 근대 매체 250여 종 중에 한시가 게재되지 않은 200여 종을 제외한 45종의 매체에 수록된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910년 8월 30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1만 9,000여 수의 한시(신문(15,083수)과 잡지(4,383수))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는 한시들은 모두 검열을 통과해야만 하였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방대한 양의 한시들이 창작되었을 것이다.
- 7) 심경호는 전통주의자와 강화학파의 한시, 변법자강론자와 개화주의자의 한시,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실천가의 한시, 방관적 지식인과 종속적 인물의 한시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심경호, 「한국시가의 근대적 대응 양상-근세 한시의 지향의식 분화」, 『한국시가연구』 제26집, 2009, 114쪽 참조.

또한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라는 이름의 민족분열정책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제는 경학원(經學院)⁸⁾과는 별도로 친일 유림 단체를 조직하여 유림계 포섭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단위 친일유림단체를 조직하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명망 있는 유림의 전향을 도모하고 항일 유림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시사원은 지역의 유림들과 지역의 유지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시사는 한시를 짓고 공유하는 모임인 만큼 한시 창작에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이라야 참여할 수 있었다. 즉 모임의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시사는 단순히 한시를 창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지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친일 유림 단체를 결성하여 기존의 전통 유림 단체를 포섭해 나가는 계획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사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유림계 내부에도 신진 유림 집단과 기존의 전통 유림 집단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유림계의 내부분열은 심지어 향교재산운영과 유림으로서의 자격을 논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당시 향교는 일제 강점기부터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요컨대, 향교의 직원이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향교는 권위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군수 또는 성균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강대민의 글에서 향교 유림들이 겪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⁹⁾

8) 경학원은 고종 때 설립한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의 개칭된 이름이다. 일제 강점기에 속하는 1911년 6월 15일에 조선총독부령 제73호 경학원규정에 따라, 남아 있던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칭하여 식민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경학원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17일 군정법령 제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에 의해 성균관으로 명칭을 회복하였다.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54~60쪽 참조.

9)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150~155쪽. 강대민은 당시의 현실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향교의 제도의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민족동화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고, 일부 친일집단으로의 표적이 되어 사실상 전통 교육의 실질과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향교의 재정의 일부를 소학교 설립하는데 기부하거나 향교 자체에 신학교를 병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서당을 운영하여 구학

일제 강점기 초·중기에는 이미 서양의 학문과 예술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체계는 여전히 유학적 관습과 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유학적 관점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¹⁰⁾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전통 유림들 간에는 노선이 갈리게 되는데, 그 하나는 공격성·용감성에 의한 의병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한 자존심으로 인한 은둔적 태도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은둔적 태도이다. 이 경우 심하게는 매천 황현과 같이 자결을 택하기도 하지만, 국난이 오래되고 위기감이 커질수록 은둔적 태도는 도리어 의병운동이나 계몽운동 등의 투쟁적인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나주와 광주의 의병활동,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이를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항일의지가 강한 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모습도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여 친일 유림¹¹⁾과 교유 활동을 한 무리도 적지 않았다.

지역의 지식인들과 지역유림들의 지향의식의 분화는 고스란히 당시의 시사 활동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정호는 “전통 유림들은 전통적인 한시양식의 채용하여 깊이 있는 서정과 사색을 담았던 부류도 있었으며, 이와는 다르게 토착 지식인들과 함께 자신의 지역사회를 소재로 하여 한시를 즐겨 창작했던 부류도 있다¹²⁾.”고 하여 당시 유림들이 의식의 분화로

문의 전수와 반일적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재정운영에 관해 조선총독부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자율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향교의 위상 및 기능이 크게 변화되자 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단체가 일제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명멸하게 된다. 이러한 유사단체들은 기존의 유림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지방의 향교를 통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기구를 확장하려 하거나 유교 또는 유학의 변형된 이념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10) 장선희, 「近代 이후 長成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高査 詩社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화회, 2009, 109쪽.

11) 이때의 친일유림들은 조선총독부의 계획에 의해 입회비 만 원 정도만 내면 유림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림을 희망하는 자는 모두 자신의 신분, 혈연, 학맥, 지식에 관계없이 유림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관변 단체들이나 지역 내 협동조합 같은 단체와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즉 지역 내 유림으로서의 소양이 있지 않은 자들도 대거 유림의 자격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면서 기존 유림들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을 제한시켜 유림의 관변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인해 노선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의 주축이 된 유림의 지향의식의 분화가 당시의 시사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일제의 검열 속에서의 시사 활동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는 매체는 물론 개인 문집이나 시사와 같은 모임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시사는 지역의 유지, 지역의 유림들과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이 활동하였던 것만큼, 일제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시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남긴 작품 또한 내용면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점은 일제 강점기의 시사를 폄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이 포함된 시사는 작품의 가치 그 이상으로 일제 강점기 한문학 활동의 현상으로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3. 시사와 문학적 대응 방식

3장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결성된 나주의 반양시사와 광주의 해양음사의 결성취지 및 시사원의 작품을 통해 문학적 대응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나주에서 결성된 반양시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나주의 반양시사

반양시사는 1926년 나주 반남의 자미산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1940년까지 나주와 영암에 거주하는 문사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 시사는 1926년부터 1940년까지 창작된 한시 410수¹³⁾를 모아 1943년에 『반양시사』를 간행¹⁴⁾

12) 심경호, 「한국시가의 근대적 대응 양상-근세 한시의 지향의식 분화」, 『한국시가연구』 제 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3~155쪽.

13) 『반양시사』는 연도별로 작자와 작품을 구분해두었다. 1926년-18명/19수, 1927년-19명/21

하였다.

아아, 우리 반양은 바닷가 외진 곳에 있지만 유교의 교화가 왕성하고 풍아(風雅)가 넘쳐나 뛰어난 유학자들이 배출되어 시사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아아, 근래에는 세도가 더욱 무너지고 선비의 기풍이 떨쳐지지 못해, 풍아를 오래 동안 그만둔 채 익히지 않으니 어찌 한심스러워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에 뜻이 맞는 여러 군자들과 모의하고 함께 도모하여 정풍(正風)으로 체(體)를 삼고 아송(雅頌)으로 용(用)을 삼아 시사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미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고 오랫동안 그만둔 시작(詩作)을 권면하고자 했다. 매년 청명하고 화창한 절기에 모여 시를 수창하며 천고의 시름을 말끔히 없애버리고자 하니, 어찌 말세의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어 병인년(1926)년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날짜를 정해 놓고 만나 강론(講論)을 어김없이 하면서 시로는 자신의 뜻을 말하고 술로 감회를 폈다. 그때의 시 작품을 엮어 이름하기를 ‘반양시사’라고 하였다.¹⁵⁾

위의 글은 1943년 정순규(鄭淳圭)가 쓴 〈반양시사서(潘陽詩社序)〉의 일부로, 『반양시사(潘陽詩社)』의 서문 중 하나이다. 그는 여기에서 반양을 ‘시사의 고향’이라고 말하면서 세도가 무너지고 풍아를 익히지 않은 당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지적하고 있다. 위의 내용 중에 정풍(正風)으로 체(體)를 삼고, 아송(雅頌)으로 용(用)을 삼는다는 것은 『시경(詩經)』의 풍·아·송을 염두

수, 1930년-23명/23수, 1931년-26명/26수, 1932년-34명/34수, 1933년-27명/27수, 1934년-36명/36수, 1935년-30명/31수, 1936년-25명/25수, 1937년-36명/총 36수, 1938년-33명/33수, 1939년-43명/43수, 1940년-56명/56수를 남겼다. 반양시사에 참여 했던 인물들은 총 86명이며, 시사원이 남긴 작품은 7언 율시 409수와 6언 율시 1수를 더해 총 410수가 수록되어 있다. 박중훈, 「반양시사의 활동 양상과 작품 세계」, 『은지논총』 제41호, 은지학회, 2014, 36~37쪽 참조.

14) 박중훈, 「반양시사의 활동 양상과 작품 세계」, 『은지논총』 제41호, 은지학회, 2014, 31쪽.

15) 鄭淳圭, 「潘陽詩社序」, 『潘陽詩社』, “嗚呼, 惟我潘陽僻在海隅, 儒化蔚興, 風雅洋溢, 弘儒輩出, 有論詩社之鄉也. 噫, 輒近世以來, 世道愈降, 士網不振, 風雅久廢不講, 胡不寒心歎息也哉. 茲庸同志僉君子, 詢議齊發, 以正風章爲體, 以雅頌篇爲用, 創設詩社. 扶植已頹之紀綱, 振勵久廢之佳什. 每年清和之節, 團會唱酬, 滌蕩千古之愁, 豈非叔世之盛事乎. 衆論歸一, 自丙寅歲爲始, 有期相會, 無違講論, 詩以言志, 酒以敘情, 名其所編曰, 潘陽詩社者.”

해 둔 표현이다. 즉 자연을 노래하고, 인간세상의 고뇌를 읊은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 담긴 시경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대 말세의 울분을 시를 통해 바로 잡자는 의도인 것이다.

반양시사는 매년 4월 12일에 자미산에서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1939년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鈺)이 쓴 〈반양시사서(潘陽詩社序)〉에 “매년 4월 12일 고을 남쪽 자미산에서 시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문옥은 1901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하여, 아버지에게 『소학(小學)』과 『통감(通鑑)』을 배웠다. 1914년에는 일제의 위협에 못 이겨 합천 보통학교에 들어갔다가 그 해 가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합천의 무산정사(武山精舍)에서 율계(栗溪) 정기(鄭琦)에게 수학하였다. 이때 스승과 문답한 것이 『대학적의(大學摭義)』이다. 1931년에는 서울에서 살았던 정인보(鄭寅普)를 방문하여 홍명희(洪命憲), 안재홍(安在鴻) 등과 교유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1933년 5월에 일제 저항을 야기하는 학문을 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임실과 순창의 구치소에서 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1934년 1월 경에 출감한 그는 다시 화순으로 돌아와 윤정복(尹丁鏞)과 위계도(魏啓道) 등 여러 문인들과 학문을 강론하였다.¹⁶⁾ 그의 『반양시사』의 서문은 구치소에서 고초를 겪고 난 이후에 여러 문인들과의 강론과 교류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반양시사에 참여한 인물은 나도기(羅燾琪)·나도관(羅燾寬)·나휘서(羅徽瑞) 등의 나주 나씨와 박기양(朴箕陽)·박우양(朴瑀陽)·박우양(朴豐緒) 등의 반남 박씨, 정순규(鄭淳圭)·정창현(鄭昌鉉) 등의 하동 정씨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마지막 시사모임을 가졌던 1940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정동근(鄭東根)의 〈반양시사서(潘陽詩社序)〉에 “서울의 문인으로부터 원근의 많은 유림들이 모여들어 예의로써 대하니 옛 풍아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¹⁷⁾”라고 하니, 인근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양의 여러 문인들도

16) 박금규, 「曉堂 金文鈺의 生涯와 詩」, 『한문교육연구』 제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235~240쪽.

17) 鄭東根, 「潘陽詩社序」 『潘陽詩社』, “自洛北縉紳, 至於遠近章甫, 揖讓進退之際, 復見其古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매년 4월12일 고을 남쪽에 있는 자미산의 정상에 올라 잔치를 열고 시를 지어 고금에 대해 노래했다. 이 지방의 풍토와 민요, 인재와 명승지를 시편 안에 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시대에 대한 감회와 이 지방을 유람한 것,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과 기쁨의 마음도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 뒷날 시를 모으는 (採風) 사람은 마땅히 여기에서 취해야 할 것이다.¹⁸⁾

위의 글은 1939년 김문옥이 쓴 <반양시사서(潘陽詩社序)>이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시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반양시사』의 작품에는 지방의 풍토민요, 인재 및 명승지가 오롯이 담겨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감회와 희노애락이 담겨있다. 이에 후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작품들 중에는 산수를 읊조리거나 시사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반양시사의 연대의식을 고취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君來時適我來時	그대 오니 때마침 나도 이르렀으니
會以維何鳴以詩	모여 무얼 하나, 시를 읊조리던대
琴闕何慙期牙遇	거문고 가락 백아 종자기 어찌 부끄럽나만은
友情難得管鮑知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은 얻기 어렵다네
翠竹高節霜後葉	푸른 대 높은 절개 서리 내린 잎
紅梅香動雪中枝	붉은 매화 눈 덮인 가지에 향기 풍기네
老少芳筵歡不極	노소들 좋은 곳에 모여 너무 즐거우니
蘭亭文物卽推移 ¹⁹⁾	난정의 문물을 그대로 옮겨온 듯해라

위의 작품은 1926년 정창현(鄭昌鉉)이 지은 것이다. 서로 시를 읊는 것으로

風雅之範謨.”

18) 金文鈺, 「潘陽詩社序」 『潘陽詩社』, “歲以四月十二日, 就縣南紫微山之上, 飲讌賦詩, 詠詠今古. 蓋其風土謠俗, 人材形勝, 靡不搜羅以入篇章之中, 而雜以感時覽物, 悲忻離合之情. 後有採風者宜於是取焉.”

19) 정창현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潘陽詩社』에 수록되어 있다.

서 백아와 종자기, 관중과 포숙아를 언급하여 우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서리 맞은 푸른 대나무 잎과 눈 덮인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는 매화는 작자가 본받고자 자연의 모습이다. 마지막 구에 같은 뜻을 가진 벗과 함께하니 진대(晉代)의 왕희지의 난정시사(蘭亭詩社)를 언급하면서, 시시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는 가슴 아픈 현실을 도피하며 세월을 즐기는 전형적인 음풍농월하는 부류로 치부될 수도 있다.

靑藜步上紫薇頭
滿座諸賢杖屨留
瓊軸聯吟挑晚興
觥籌交錯做清遊
林花作雨紅如霞
浪麥翻風翠不流
俗士不知時局異
無端學海泛虛舟²⁰⁾

명아주 지팡이로 자미산 오르니
제현들 자리 가득히 메우고 있네
주옥의 시 이어 읊어 때 늦은 흥 돋우니
성대한 연회와 고상한 놀이 연상케 하네
숲속의 꽃은 비에 붉은 꽃이 싸락 눈 같고
요동치는 보리 바람불어 푸른 빛 흐르지 않네
세속의 선비 시국이 달라짐 알지 못하고
무단히 배움의 바다에 빈 배만 띄우네

위의 작품은 1937년 권영곤(權寧坤)이 지은 것이다. 어김없이 시회가 열리고 여러 제현들과 함께하며 시를 읊는다. 그는 7구와 8구에서 “세속의 선비들 시국이 달라짐 알지 못하고, 무단히 배움의 바다에 빈 배만 띄우네”라고 하여 시국은 급변하는데 안일하게 배움에만 몰두하는 당대 지식인을 질타하고 있다. 어쩌면 여기서의 ‘당대 지식인’은 작자를 포함한 자미산에 오른 제현들이 될 수도 있다. 즉 그는 현실과 맞지 않은 생활에 자책하면서도 소극적인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南風四月錦城前
濟濟衣冠會午天
帆勢高低雲裡海

4월의 남풍 금성 앞에 부니
의관을 갖춘 이들 한 낮에 모였네
높고 낮은 돛대 구름 안개 속 바다

20) 권영곤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潘陽詩社』에 수록되어 있다.

鳥聲遠近雨餘川	원근의 새소리와 비 내린 하천
北指漢陽心裂處	북쪽의 한양 보면 마음 무너지고
南望月岳眠窮邊	남쪽의 월악 보면 궁벽한 변방이라
滄桑世事今如許	덧없는 세상의 일 지금과 같으니
回憶往時十八賢 ²¹⁾	돌이켜 지난시절의 18현 생각하네

위의 작품은 1930년 임병채(林炳采)가 지은 것이다. 그는 북쪽과 남쪽 모두 어지러운 시국에 마음 둘 곳 없어 오로지 지난 시절의 18현 뿐을 생각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18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즉 설총, 안향, 김굉필,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이언적, 김인후, 성혼, 송시열, 박세채 등을 말한다. 임병채는 노사 기정진의 학맥을 이어 1929년 11월에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듣고 밤새도록 반남장터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다 투옥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 시내에서 빚어진 한 일 중학생간의 충돌로 야기되었으며, 이 운동은 1930년 3월말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었던 운동이다. 이 작품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떠들석한 당시의 상황을 접한 후에 지은 것으로, 저항의식이 녹아든 작가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에서는 일제 치하의 암담한 시간 속에서 은거하며 마음을 알아주는 벗과 시를 읊으며 하루하루 지내지만, 일제 강점기가 지속됨에 따라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갈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過古殷墟乃作歌	옛 은나라 터 지나며 노래 지으니
可憐麥穗感時多	가련도다, 맥수가 감개함 많았으니
欲見山河難舉目	산과 강 보고자 해도 눈 들 수 없어
堪隨風景共登阿	풍경 따라 함께 언덕에 올랐어라
鳥啼花落人全老	새 울고 꽃 저 사람들 모두 늙었으나
雨順風調歲太和	비바람 때에 맞아 세상은 평화롭네

21) 임병채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潘陽詩社』에 수록되어 있다.

沛澤龍飛雲五色 못의 용 오색구름 속으로 날아가니
子房明知問蕭何²²⁾ 子房도 蕭何에게 물을 줄 알았다오

위의 작품은 1934년 나휘서(羅徽瑞)가 지은 것이다. 맥수지탄의 설움을 읊고 있으며 바깥세상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해 산에 올랐다고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구의 '새 울고 꽃 저 사람들 모두 늙었으나'의 구절은 세월의 흐름에 대한 가벼운 표현 같기도 하며, 일제 치하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못의 용이 오색의 구름 위로 오르는 것을 통해 국운(國運)이 다시 펼쳐지기를 자방(子房)이나 소하(蕭何) 같은 인물을 언급하여 작자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즉 자방(장량의 호)과 소하는 한신과 함께 초한지에 등장하는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공신들이다. 여기에서는 자방과 소하와 같은 인재가 나타나 일제 치하의 현실을 극복했으면 하는 작자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나주의 반양시사의 문인들은 세도가 무너지는 당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의 작품에는 저항의식이 녹아든 작가의 고뇌와 당대 속인들의 삶을 비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반면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현실에 수긍하며 태평한 심정을 담은 작품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광주의 해양음사

다음은 광주에서 결성된 해양음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양음사는 1931년 일제 강점기 부호(富豪)였던 최석휴(崔錫休)의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해양음사에서는 1933년에 『운림당시문집(雲林堂詩文集)』 2책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작품은 산문 10여 편, 한시 700여 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책은 1책에 〈서문(序文)〉, 〈목차(目次)〉, 〈운림당공사창수운(雲林堂工事唱酬韻)〉, 〈운림당전경도(雲林堂全景圖)〉, 〈운림당상량문(雲林堂上樑文)〉, 〈운림당기(雲林堂記)〉,

22) 나휘서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潘陽詩社』에 수록되어 있다.

〈운림당원운급팔경시(雲林堂原韻及八景詩)〉, 5등까지의 〈입선시문(入選詩文)〉과 〈선외佳作(選外佳作)〉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2책에는 〈선외시문(選外詩文)〉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5등 까지 입선된 작품에는 시평(詩評)이 각각 붙어 있는데, 모든 작품이 운자(韻字)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대외적으로 알려 큰 규모의 시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가들이 지역 곳곳의 인물들인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최석휴의 〈해양음사취지서급임원록〉이다. 여기에는 해양음사의 결성 시기와 취지, 그리고 시사 임원록이 기록되어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를 구할 수 있으면 비록 집편지사라도 나는 할 수 있으나, 구할 수 없다면 나는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지금 나는 본래 시서를 익히고 나이가 이미 쇠매(衰邁)하여 어찌 이 세상과 서로 어긋난다고 업신여기겠는가! 만약 제문에서 비파를 구하여 두드리고자 해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강 위의 청풍지간의 명월(明月)에서 그것을 취하니, 그것은 사용하기를 금하지 않아도 닳지 않는다. 홀로 스스로 그 사이에 마음을 붙여 세월을 보내는 방법으로 삼아 시를 읊으니 이것이 일의 끝이라고 할 만하다. 시는 진실로 말이 어려우니, 어찌 우물안 개구리의 즐거움이라고만 하겠는가! 스스로 만족하며 영해안의 도연명, 유종원의 문정과, 이백과 두보의 골격에 이르고자 한다. 무릇 몇몇 집안끼리 서로 연락하고 교환하여 깨달아 자질을 갈고 닦는다면 풍미해짐이 자라나 몸이 늙어도 아랑곳 하지 않게 되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그 절차와 방법은 관례가 있으나 제시할 수 없다. 아아! 나는 이미 세상을 구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비웃으니 또한 되돌아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오직 나의 사람들만이 마땅하다. 이것이 해양음사를 취하여 만든 것이니, 오직 동지들이 도운 것이다. 공자 탄신 2483년 임신년(1931) 음력10월 보름²³⁾

23) 『雲林堂詩文集』, 「海陽吟社趣旨書及任員錄」, “仲尼有言, 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可爲也, 如不可求, 從吾所好. 今五人素習詩書, 年既衰邁, 寄傲於斯世相違. 若齊門鼓瑟求何獲焉. 惟江上之清風山間之明月取之, 無禁用之不竭. 獨自吟哦於其間以爲消遣法, 是可謂能事畢矣. 而詩固難言, 豈可以井蛙之樂. 自以爲足, 而止瀛海以內陶柳門庭李杜骨格. 凡幾家互相聯絡交換意識, 以資磨礱, 則風味滋長不知老之至矣, 不亦樂乎. 其節次方法, 自有照例不必提撕也. 噫, 吾既無求於世, 世人之譏笑, 亦不暇顧念, 而惟吾人之適. 是取海陽吟

최석휴는 광주의 병천사를 지은 지용현, 광주극장을 지은 최선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호였다. 그는 마음을 붙여 세월을 보내는 소요처로 삼기 위해 윤림당(雲林堂)이라는 정자를 짓고, 시작(詩作)을 통한 교유활동을 하면서 도연명과 유종원, 이백과 두보의 골격에 따르고자 했다. 스스로 시작(詩作)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우물안 개구리의 놀이일 뿐임을 의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음사의 취지를 알 수 있다.

시사의 주무대였던 윤림당은 현존하지 않아 볼 수 없으며, 그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다. 다만, 해양음사의 『윤림당시문집』에 수록된 여흥(驪興) 민병승(閔丙承)의 <윤림당기(雲林堂記)>에²⁴⁾, “광주의 동남쪽 수리에 위치한 선원마을(지금의 무등산 자락의 윤림동 부근)에 윤림당이 있고, 가운데서 최군(최석휴)이 세웠다. 그 땅은 운곡과 홍림을 좌우로 비추고 어울려 있다. 이에 그것을 취하여 이름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윤림당’이라고 명명한 유래와 정자의 위치를 어렵듯이 짐작해볼 수 있다. 참고로 운곡과 홍림은 광주군 지한면과 부동방면에 각각 속했던 지명이다.

해양음사는 석사(石史) 기동설(奇東高), 소파(小坡) 송명회(宋明會),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 권익상(權益相), 송파(松波) 고광수(高光洙), 이기호(李起濤), 윤영기(尹永淇), 최종섭(崔鍾涉), 하석규(夏錫圭), 회봉(晦峰) 이정(李楨)과 운인(雲人) 송홍(宋鴻) 등의 작품이 있다.

山中卜築已經春	산중 헤아려 축조하니 봄 이미 지나가고
事事清幽絕俗隣	모든 일 그윽해 속세와 떨어짐 알겠네
初飲靈泉仍擇地	처음 영험한 물 마신 이 곳이 택지이니
自培瑤草不煩人	절로 복돋아 옥풀 사람 괴롭히지 않네
天晴紛滴羣巒翠	날씨 개어 빗방울 흩어지니 봉우리들 푸르고
野曠全消遠市塵	광야의 먼 시내의 먼지 모두 사라지네

社作焉，惟同志翼之也。孔子降生二千四百八十三年歲在壬申小春之望。”

24) 『雲林堂詩文集』, 「雲林堂記」, “光州之治東南數里仙源洞有雲林堂者, 崔君可雲居士所築也。其地也, 雲谷洪林左右映帶, 故取以名之。”

正合老來修鍊計 늘그막에 수련하기를 꾀하니
朱顏勝昔碧瞳新²⁵⁾ 소년시절의 옛날 같아 푸른눈동자 새롭네

위의 작품은 운인(雲人) 송홍(宋鴻, 1872~1949)이 지은 것이다. 영험한 물을 마신 듯 한택지에 세워진 윤림당에 올라 바라본 풍경을 읊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민족 교육 운동가로, 송병선에게 수학하였다. 또한 그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몰래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 시켰으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검거된 것을 보고 사직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세속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환경에 평온함을 느낀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가 이곳에 올랐을 때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단락 된 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혼란한 속세에 있다가 한적한 이곳에 오르니, 그 평온함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또한 광야의 흙먼지 언제 사라질 지 막막했지만, 비로 인해 잠시 흙먼지 사라지니 일제 치하에서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된 듯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一堂隱隱洞藏春 회당에 은은하게 고을이 봄 품으니
林邃雲深有幾隣 깊은 숲과 구름 얼마나 가까운가
流水高山清絕界 높은 산에 흐르는 물 절계 맑게 하고
淸風明月主張人 밝은 달의 맑은 바람은 사람 주재하네
世潮滄矣還如夢 세상의 풍조 타락하니 오히려 꿈 같고
骨相飄然不受塵 산 골상은 표연하여 먼지 묻을 곳 없네
暮境偏憐花樹好 늘그막에 편애하여 꽃과 나무 즐겨
追隨日夕誼維新²⁶⁾ 밤낮으로 뒤쫓아 따르니 정 새로워지네

위의 작품은 최종섭(崔鍾涉)이 지은 것으로, 그는 1948년 10월 22일에 설치

25) 송홍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雲林堂詩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26) 최종섭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雲林堂詩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전라남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작품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림당에 올라 본 자연의 풍광을 노래하면서도 일제 치하에서의 삶에 대한 고뇌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다.

雲林堂裏記王春	윤림당에서 정월 봄날에 기록하니
自在羲皇上世隣	절로 희황이 있던 세상의 이웃이라
桂樹山空無虎子	계수나무 빈 산 비어 호랑이는 없고
桃花水暖有漁人	복사꽃과 물 따스해 어부는 있네
上方慧月參禪偈	위에서는 번뇌와 참선의 글귀요
下界腥風隔市塵	아래서는 비린바람 사이 시내의 먼지라
一自隆熙年曆盡	조선의 마지막이 다함으로부터
不知送舊又迎新 ²⁷⁾	송구영신해야 함을 알지 못하네

위의 작품은 소파(小坡) 송명회(宋明會)가 지은 것으로, 1등으로 당선되어 『윤림당시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윤림당에서 정월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 따스한 정월 봄날은 고요하여 마치 희황(羲皇)이 다스리던 태평성대의 시절을 연상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기에 번뇌와 참선의 글로 그 울분을 억누른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송구영신해야함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일제 치하에서의 송구영신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진솔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郭外堂成是歲春	성 밖에 정자 세우니 때는 봄이라
林深非復舊羈隣	깊은 숲속에 옛 시끄러운 이웃 없네
自知傲骨相違世	절로 강직하여 세상과 서로 어긋남을 알아
祇喜閒區尙待人	다만 한가한 곳 즐기며 되려 사람을 기다리네
野豁峰多宜縱眠	넓은 들과 봉우리 펼쳐지니 늘어져 한숨하고

27) 송명회의 작품이며, 무제(無題)이다. 『雲林堂詩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泉清巖古未接塵	맑은 물 옛 바위에 먼지조차 들지 않네
村翁來說仙源史	촌옹이 와서 도원의 역사 말하니
谷口桃花劫後新 ²⁸⁾	골짜기 입구 복숭아 꽃 겹후에 새롭게 피네

위의 작품은 최석휴의 〈원운(原韻)〉으로, 많은 차운시를 낳은 시이다. 속세의 시끄러움 때문에 산에 들어와 운림당을 지었다. 강직한 성격 때문에 세상과 서로 어긋났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속세의 시끄러움’과 ‘강직함’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양음사 취지문에서, “나는 이미 세상을 구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비웃으니 또한 되돌아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오직 나의 사람들만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한 것을 통해 당시 그의 신분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의 대표적인 부호(富豪)였음을 감안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된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자신을 알아주는 벼를 원했고, 이곳에서 경물(景物)과 벗하며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 치하에서의 힘든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사치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저항의식을 간직한 작가들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상으로 해양음사와 그 시문집인 『운림당시문집』에 수록된 몇 작품을 살펴해보았다. 작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제치하에서 각 위치에 따라 그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달랐으며, 이에 문학적인 대응 방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작품 또한 감시체제 또는 현실 도외시의 측면에서의 경물시와 현실비판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낳기도 하였다.

28) 최석휴의 〈원韻〉으로, 운림당의 팔경시(八景詩)와 함께 『雲林堂詩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나주의 반양시사와 그 시문집인 『반양시사』, 광주의 해양음사와 시문집인 『운림당시문집』을 각각 살펴보았다. 시사마다 그 구성원의 성향이 다름에 따라 작품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 개의 시사의 구성원은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는 시기를 경험한 인물로, 그들은 대부분 굴곡 있는 삶을 겪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인들마다 작품에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방식은 달랐다. 즉 문인들은 일제 치하에서의 민중들의 삶과 고민을 작품에 투영하기도 하였고, 현실에 적응하며 친일적인 성향이 작품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친일적 성향의 유무를 떠나 무관심 속에서 경물에 관심을 두고 음풍 농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연구되지 않은 시사들이 있어, 시사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시사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당시의 문화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시사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부정적인 평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 호남의 시사활동 전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것의 1차 작업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론에서 말한 문학적 대응 방식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결성된 다른 지역의 시사연구의 확대로 해결해 나가고자 함을 밝힌다.

참고문헌

1. 자료

『潘陽詩社』

『雲林堂詩文集』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김경옥, 『국역 반양시사』, 나주 문화원, 2010.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삼화인쇄주식회사, 1972.

2. 논저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정환, 「20세기 求禮의 詩社 연구」, 『어문논총』 제16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109~133쪽.

권유성, 「〈대한매일신보〉소재 시가의 탈식민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10호, 한국시학회, 2004, 83~108쪽.

박금규, 「曉堂 金文鈺의 生涯와 詩」, 『한문교육연구』 제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231~282쪽.

박영민, 「1910년대 辛亥陰社의 詩社 활동과 安往居」,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5차 국제학술대회, 2008, 563~573쪽.

박종훈, 「반양시사의 활동 양상과 작품 세계」, 『온지논총』 제41호, 온지학회, 2014, 33~61쪽.

심경호, 「한국시가의 근대적 대응 양상-근세 한시의 지향의식 분화」,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3~155쪽.

윤호진, 「詩社 研究의 回顧와 展望」, 『한문학보』 제25집, 우리한문학회, 2011, 3~32쪽.

이종묵, 「한시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동한문학』 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21~42쪽.

이희목, 「일제강점기 한시 소고」, 『인문과학』 제45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5~26.

장선희, 「近代 이후 長成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高嶺詩社를 중심으로」, 『고

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293~322쪽.

장선희, 「每月吟社 研究-근대후기 호남지역 詩社活動의 일 모습」, 『한국언어문학』 제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203~225쪽.

장선희, 「木浦詩社 研究-근대후기 한문학 활동의 일 단면」, 『한국언어문학』 제4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223~246쪽.

| Abstract |

Literary Club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 and Their Literary Responses

— Focused on Banyang Literary Club in Naju
and Haeyang Literary Club in Gwangju —

Seo, Seong-woo

This thesis examined two pieces of literary work by literary clubs form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 *Banyangsisa* by Banyang Literary Club in Naju and *A Collection of Poetry and Prose from Wonnimdang* by Haeyang Literary Club in Gwangju. By focusing on the activities and creative work by literary club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 it investigated literary responses of literary men in the colonial modern space.

The Japanese secret police included in the targets for its censorship not only political organizations or the press, but also private groups like literary clubs. Furthermore, most literary clubs were participated by local Confucian scholars, community leaders, and patriots, and therefore, these literary clubs were considered to be perfect targets not only for distributing pro-Japanese propaganda, but also for a target for surveillance. As such, literary clubs often could not express their frustration freely and had to endure considerable restrictions. Also such censorship often clouded rational judgments by literary men.

Consequently, there were diverse literary responses from literary men who participated in literary clubs, which this study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Literary men in the first category were those who resisted atrocious violence committed by Japan during the occupancy. They sang the nation's sorrowful life and continued to desire fo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Those in the second category are those who compromised with reality and sang an age of peaceful time. Most of them were degraded to become pro-Japanese factions to acquire or maintain their vested rights. Literary men in the third category are those who ignored the reality. They clung to natural beauty, mainly writing

seasonal poems.

Key words : Japanese Occupancy, Banyang Literary Club, Haeyang Literary Club,
Resistance, Compromise, Escapism